

망념 일으키는 그 자리가 깨닫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법[心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위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선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음인 줄 알면 한결 쉬울 텐데,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자기도 모르게 찾고 구하게 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는 말을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해탈 수밖에 없다.

당장 무심함만 못하니, 무심이 곧 본래의 법[本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사람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본래부터 구슬이 있었음을 바로 알아보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에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며 차제를 밟아서 깨달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억겁동안 애써 구한다 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소승은 중생 근기를 바쳐 차제법문을 설했지만, 대승과 최상승은 차제가 방편인 줄 아서 본래 무심자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한 생각에 깨달으면 따로 차제로 찾고 구하는 일 없이 즉시에 성품을 보고 뜻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선 '먼 거리를 가려면 한 걸음부터인데, 어찌 한참에 도착한다 말인가?' 라고 말한다. '가고, 가지 않고'에 관계없이 본래 마음자리를 갖고 쓰고 있지만,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라는 사실을 눈뜨게 해주면, 이런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편 눈을 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부는 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갑갑해졌다며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등지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해매게 된다.

〈대반열반경〉 '여래성품'에 이런 우화가 전한다. 어떤 왕실에서 시종하던 힘센 장사[力士]가 미간에 금강석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다른 장사들과 씨름을 했는데, 어느 날 이마를 부딪쳐 금강석이 피부 속으로 함몰되고 말았다. 자랑스러운 금강석이 보이지 않자, 그는 잃어버린 줄 알고 슬피 울며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나중에 현명한 의사를 통해 금강석이 이마 속에 깨달음을 알게 된 그는 불사의(不思議)한 도리를 깨달았다고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설행 <10>



범이사 주지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면

천만 겁 지나도 얻지 못한다

밖으로 찾아 다니는 수행은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한번 눈을 떴더라도

이치를 수용 못하면

갈팡질팡하는 이들도 있다

망념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망념 일으키게 하는

근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망상에 꼬달리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낼 수 있다



그림 · 박구원

한다.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연야달다 고사(故事)'와 같은 뜻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우화라 하겠다.

일체의 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결정코 알아야 한다. 외지할 것도, 머무는 것도 없다.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망념이 일어날 때, 거기에 꼬달리던 깨달음과는 등지가 된다. 즉시 알아차려서 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꼬달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망념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닫는 자리다. 이것이 바로 원력바라밀이다. 이런 바라밀을 자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중생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지, 스스로도 제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바라밀을 행한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쓸데없이 더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바라밀행을 하는 것만을 말하자면, 타종교인들도 잘한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바라밀행은 일시적인 편안함만 줄 뿐, 고(苦)의 원인을 알아서 본래부터 망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보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분명 맞는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을 낸 입장에서 이 말이 그림자를 쫓아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망념을 일러내지 않고 하니 문제가 다. 망념을 없애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망념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본

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망상에 더 이상 꼬달리지 않고 그냥 흘러보낼 수 있다. 확실히 깨진 입장에서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슬어서 자취를 감출 수 있고, 일으키려면 하루 종일 일으켜도 일으키기 이전의 모습을 알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이다.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本心佛]를 깨달을 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일 뿐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본래부터 이마에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 다녔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아득다라삼막삼보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 연려되어, 오안(五眼)을 가져다 보이시고, 여어(如語)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도리는 진실 되어 허망하지 않으며, '최고의 진리[第一義諦]'다.

이치를 설행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잘못까지 저지르곤 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공부한 입장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나간다. 반면 공부한 바가 없는 입장에서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공금증이 하나씩 끼치는 것에서 즐거움을 구할 뿐, 진정한 즐거움은 놓치고 만다.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에 오안과 오어가 나온다. 오안은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이다. 오어는 진어(眞語), 실어(實語), 여어(如語), 불광역(不?語), 불어(不異語)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⑩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비취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반야심경〉

제3의 거울

문학평론가 김현은 1982년에 '바라봄과 텅 빈...거울의 이미지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다. 프랑스의 문학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책 〈기호의 제국 L'empire des signes〉에서 촉발되어서, 쓴 글이다. 〈기호의 제국〉은 바르트가 일본을 여행한 뒤에 쓴, 일본을 활용하여 자기의 세계관을 다시금 설명한 책이다. 그 중에 김현의 눈을 끈 대목은 이렇다.

"서양에서는, 거울은 본질적으로 나르시스적(자기도취적)인 대상이다. 사람이 거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거울은 공(空)인 것 같다. 그것은 상정의 공의 상징이다. 도인(道人)의 정신은 거울과 같다. 그것은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으며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받아들이나, 간직하지 않는다'라고 한 도승은 말한다. 거울은 다른 거울만을 사로잡으며, 그 한없는 반사는 공 자체이며, 그것이 바로 형태인 것이다."

바르트가 여기서 거울의 공, 즉 거울이 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선(禪)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찍이 나르시스를 깊이 생각했던 김현은 이제 바르트를 통해서 동양의 거울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바르트가 말한 '텅 비어 있으나 다 받아들이는' 거울 이미지는 육조혜능의 계승, "맑은 거울은 원래 한 물건도 없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현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 불교에 제3의 거울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상 스님이 말하는 거울이다. 스님은 〈백화도량발원문〉에서, "관세음보살의 거울 속 제자의 몸으로, 제자의 거울 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귀명정래하여"라고 말한다.

의상 스님이 말하는 제자, 즉 나는 '거울 속의 나'이고, 관세음보살님 역시 '거울 속의 관음'이다. 우리 모두는, 관음과 제자, 부처님과 중생은 모두 '거울 속의 존재'일 뿐이다.

거울 밖의 존재는 확실히 있지만, 거울 속의 존재는 그렇게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중생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오직 '거울 속 그림자·이미지'일 뿐이며, 거울 밖에 존재는 본래 없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 한 말씀

〈반야심경〉에서도, 〈백화도량발원문〉과 같이 주인공은 관세음보살이시다. 그 분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취 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라고 말해진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취어 본다, 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모두 '거울 속의 그림자·이미지'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불교를 다룬 어떤 종교나 사상과도 다르게 구별 짓는 지점인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반드시 암묵리에 전제하고 있는 한 생각이 있다. 그것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러한 사상을 설행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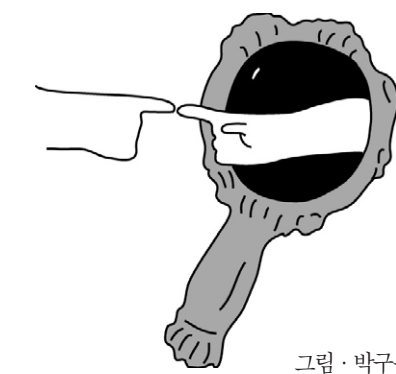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다. 기독교·이슬람교·유교에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 말은 '거울 밖에 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 있는 것은? 바로 '거울 속의 그림자·이미지' 뿐이다. 그림자·이미지는 존재라 하거나 비존재이고, 비존재라 하거나 존재이다. 무슨 말인가? 그 말의 이해는 쉽지 않지도 모른다. 불교 수행의 가장 마지막에서야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말이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존재(오온)를 비존재(공)로 말하는 데에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나는 말하고 싶다.

만약 팔만대장경의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 남길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가르침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다 갈무리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 속에 비추어 있는 존재·이미지일 뿐이다.

고로 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다, 라고 말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단 등록자 (사찰) 중 제 5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려,포교사는 당 종단 정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제적 공고 함.
- 제적일자 : 2012년 12월 31일.
- 제적된 자(사찰)는 본 종단 소속 명의로 일체업무 금지, 사찰등록증, 승려증, 포교사증 효력상실.
-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소속 사찰로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즉각 취소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지.

NO/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1. 이성호	금봉	소원사	A003-005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도리 813
2. 김경민	명교	화룡사	A006-008	경남 창원시 동읍 불산리 96-1
3. 양정식	흥각	흥각사	A004-011	부산시 진구 양정2동 64-1
4. 홍성표	도경	진옥암	A004-015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251-10,11동1번
5. 송해식	청해	화룡사	A005-017	부산시 진구 전포2동 27-17,10동5번
6. 박용길	윤봉	성불암	A007-024	부산시 남구 용호2동 521-1
7. 최길호	실봉	금룡암	A007-025	경남 김해시 삼정동 69-5
8. 한청길	서봉	송정사	A007-026	부산시 구포1동 622-4(3층)
9. 김재용	동봉	용암사	A007-027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202동 316호
10. 최해영	법성	남부산포교원	A007-030	부산시 남구 대연6동 608-817
11. 정기동	보성	약수암	A008-035	대전시 중구 사정동 신9번지

NO/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12.오화주	명봉	송암사	A008-036	대전시 중구 안영동 90번지
13.이상재	대산	폭포암	A008-040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17-84/2동1번
14.현종복	대천	천신암	A008-041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1-25
15.문형준	도성	대각사	A009-046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산97-20
16.오수암	무산	청각사	A009-047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봉화곡708-4 6/1
17.정일근	지각	동악사	A009-048	경북 예천읍 봉본2리 3
18.권대일	대일봉		A009-049	울산시 남구 옥동 182-9
19.송재인	법상		A009-050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932-2번지
20.장경식	도봉	지장암	A009-051	경남 통영시 산양면 추도리 향목35-7
21.안성기	도선	국산암	A009-053	경북 영주시 하망동543-8 4/1
22.강태석	무봉	대영사	A010-05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322-9
23.최종진	도행	용암사	A012-006	대구시 서구 비산5동 1233-8
24.황우덕	일동	대국사	A010-061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163-36
25.한복우	정봉		A010-062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473-1 해운대대림아파트2428
26.배성호	무봉	선관사	A011-064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4-88
27.김영일	지오		A011-065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253-105
28.윤광천	백암		A011-066	경남 거제시 옥포2동 덕포618
29.김창순	행련	대왕사	B006-002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74 34-2 6/3
30.박봉순	문수	석불암	B006-003	울산시 중구 북정동 340 4/6
31.조영래	천진	연화사	B006-0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312-4
32.한니영	덕행	진옥암	B006-009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251-10
33.김정희	금련	선덕사	B006-02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천리 712-3
34.지혜순	덕련	천룡암	B006-021	경북 구미시 광평동 170-4 6/4

NO/성명	불명	사찰명	등록번호	소재지
35.김향순	향봉	보현사	B006-023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262-14
36.문성분	대륜	보현사	B007-027	울산시 중구 교동 360-10 5/2
37.최용연	일덕	성우정사	B007-030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219-1
38.이상임	일련	대원암	B006-008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77-6
39.맹성욱	성행	약수암	B007-034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760-22 4/1
40.김순자	명행		B007-036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5-53
41.김춘자	옥경	옥정암	B007-038	울산시 동구 화정동 662-3
42.구현자	덕화	철성암	B007-039	울산시 동구 화정동 659-4
43.박명순	덕애	법수암	B007-040	울산시 동구 화정동 640-444
44.공정수	정수	회성암	B008-041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338
45.김홍련	일장		B008-043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199
46.김영순	일행	매곡암	B008-045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11-45
47.김홍림	지련	홍련암	B009-051	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9 18/1
48.윤외숙	대덕	미륵암	B009-052	대전시 동구 천1동 76-19 10/4
49.황은선	위덕	관음암	B009-053	대전시 중구 사정동 226 41/3
50.이종연	선덕	미륵암	B009-054	경남 함양군 마천동 추성리 185
51.한나경	반야	관음사	B010-055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70-1
52.구순연	대련	봉련암	B010-05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66-5
53.우정자	원성	가성암	B010-057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661
54.윤은숙	보적	수정암	B010-05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327-26
55.송화진	다천	용담정사	B010- 59	창원시 마해구 석동 200-11
56.여연	효행	옥수암	B007-035	거제시 하청면 실천리 418-1

이상 56명 제적함

불기 2556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회 이사장 신용태(법련),총무위원장 김판개(대력)